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김 동 윤*

<요 약>

이 글은 현대소설에서 제주해녀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필자는 제주해녀를 형상화한 현대소설 작품을 통독해 보고 그 경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국적·성적 이미지로서의 제주해녀,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 등이 그것인데, 그것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까지의 제주해녀에 관한 작품들은 김정환의 「월광한」, 허운석의 「해녀」, 황순원의 「비바리」, 정한숙의 「해녀」·「굴밭 언덕에서」 등에서 보듯이 모두 외지인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는 대체로 제주해녀를 낭만적으로 인식하여 그 구체적인 삶의 양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주해녀를 이국적 이미지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소설들은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 작가의 작품들이다. 따라서 제주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통해 제주해녀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굳혀놓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둘째,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오성찬·현기영·현길언·고시홍·오경훈·한림화 등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제주해녀가 본격적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이들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45-B20003)

** 제주대 강사

의 작품에서는 해녀들에 대한 낭만적 인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고시흥의 「표류하는 이어도」,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등에서는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제주바다에서의 물질작업이든 타지에서 행하는 바깥물질이든 해녀들이 인고하며 맞닥뜨려야 할 생업으로 인식된다. 제주해녀들이 생명을 걸고서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숙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문학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제주해녀의 생활상도 역사적 시각을 토대로 접근하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거룩한 생애」,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 오경훈의 「세월은 가고」, 한림화의 「불턱」 등의 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는 20세기에 제주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 가운데 1930년대 해녀항쟁에 집중되어 형상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4·3과 연관된 작품들도 적지 않다. 1930년대 해녀항쟁이 주로 부각되는 것은 그 사건에 해녀들이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건 역시 해녀만이 아니라 제주사람 전체의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의 삶의 양상은 처절한 현대사를 헤쳐온 제주사람 전체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I. 머리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아낙네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에 관해서는 강대원, 김영돈, 전경수, 한창훈 등에 의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저마다 여러 논거를 동원하여 ‘잠수(潛嫂)’ 또는 ‘잠수’, ‘해녀(海女)’, ‘잠녀(潛女)’ 또는 ‘잠녀’ 등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녀라는 호칭은 일본인의 식민지 정책상 천시해서 그런 것이므로 잠수라고 불러야 한다거나,¹⁾ 해녀는 원래 일본 용어라는 점 때문에 잠녀 또는 잠수라는 용어의 회복과 정착이 바로 탈식민화의 과정이라는 주장²⁾이 있다. 그러나 잠녀라는 용어가 제주도만이 아닌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이고, 해녀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온 말이지만 ‘물질’(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일컫는 제주방언. 이하 방언형 그대로 사용함.)하는 여인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³⁾ 굳이 해녀를 버리고 잠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잠녀는 그 발음이 ‘雜女’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⁴⁾ 잠수라는 용어도 ‘潛水’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작가들도 여러 용어를 두루 사용하였다. 특히 현기영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장편소설 『바람 타는 섬』(1989)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애당초 ‘해녀조합’이란 말부터가 글러먹은 거라. 왜 우리가 ‘해녀’여? ‘잠녀’지. ‘해녀’는 왜말이라. 물질하는 일본인들이 ‘해녀’라구. 그러니까 ‘해녀조합’이 아니라 ‘잠녀조합’이라 해야 옳은 거라. 이렇게 우리 이름까지 빼앗겼는데 다른 건 왜 안 뺏기겠어?”⁵⁾

- 1) 강대원, 「서문」, 『해녀 연구』(한진문화사, 1973), 22쪽.
- 2) 전경수,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화」, 『제주언어민속논총』(제주문화, 1992), 487~493쪽.
- 3) 김영돈, 「해녀의 명칭」, 『제주의 해녀』(제주도, 1996), 42~50쪽.
- 4) 전경수, 앞의 글, 492쪽; 한창훈, 「제주도 잠수들의 생활과 민요」,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2000, 월인), 333쪽.

작중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는 작가의 단호한 생각이었던 것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었다.⁶⁾ 현기영이 이 작품에서 줄곧 ‘잠녀’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을 해녀들은 낮에는 물에 들고 밤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미역밭에 야경을 돌았다.”⁷⁾에서 보듯이, 같은 소설에서 ‘해녀’라는 말도 찾을 수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쓴 것이겠지만, 그만큼 ‘해녀’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기영의 다른 저작들에서도 ‘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⁸⁾

이런 점들을 볼 때 어느 용어나 모두 나름대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인류학·여성학·의학(생리학)·법사회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바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민요를 비롯해서 설화·속담 등과 관련하여 해녀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다.⁹⁾

5) 현기영, 『바람 타는 섬』(창작과비평사, 1989), 70쪽.

6) 물론 그 이전에도 ‘해녀’라는 용어의 문제점이 몇 차례 지적된 적이 있었지만, 『바람 타는 섬』에서의 이러한 언급이 나오면서부터 해녀라는 용어가 일제잔재이므로 잠녀로 써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7) 현기영, 앞의 책, 10쪽.

8) 현기영의 창작집 『순이 삼촌』(창작과비평사, 1979)에서는 “상군해녀이던 당신이 갑자기 물이 무서워져서”(48쪽), “해녀들의 물질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해녀들의 궁둥짝같이 넓적등글한 태워”(103쪽) 등의 표현이 보인다. 산문집 『젊은 대지를 위하여』(청사, 1989)에서는 “해녀들은 물 속의 미역밭에 자맥질해 들어가”(89쪽), “해녀들은 물과 가까운 데서”(90쪽), “해녀의 「노동요」”(92쪽), “해녀봉기사건”(96쪽), “해녀들의 항일투쟁”(103쪽), “공동해녀 어로장”(165쪽) 등 여러 차례 해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우리들의 어머니, 잠수 고씨」(191~197쪽)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줄곧 ‘잠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최근의 산문집 『바다와 술잔』(화남, 2002)에는 「탈중심의 변방 정신」(2002)과 「웅혼한 4·3 서사극—화가 강요배」(1992)에서 ‘해녀’로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작에서는 “70여 년 전의 해녀항일투쟁”(65쪽), “해녀항일투쟁을 소재로 쓰여진 나의 장편소설”(66쪽),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 동원된 해녀항일투쟁”(67쪽) 등의 표현들이 있고, 후작에서는 “제주해녀들의 반일투쟁 이야기를 다룬 장편”(227쪽)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9) 제주해녀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는 김영돈의 「해녀의 특이성과 연구방법」(『제주의 해녀』 제1장)과 해양수산부가 펴낸 『한국의 해양문화—제주해

그러나 아직까지 구비문학이 아닌 개인 창작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제주해녀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없는 것 같다.¹⁰⁾ 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해녀를 다룬 소설들에 주목해 보았다.

소설 작품 가운데 제주해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꽤 있다. 고소설에서도 「배비장전(裴裨將傳)」의 후반부에 제주해녀가 등장한다.¹¹⁾ 현대소설의 경우 1940~1960년대에는 외지인 작가들에 의해 제주해녀가 그려졌다.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해녀들의 세계가 소설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그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제주해녀를 이해하는 자료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소설은 사회와 현실의 반영이면서 문화연구의 요긴한 자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현대소설에서 제주해녀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소설들에서 제주해녀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작가들의 눈에 해녀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인식의 차이가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유념하면서 경향별로 유형화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제주문학의 차원만이 아니라, 제주학의 영역은 물론 한국문학 전반에서 각각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 보았다.

2. 현대소설에 형상화된 제주해녀의 양상

필자는 제주해녀를 형상화한 현대소설 작품들을 통독해 보고 대체로 그 경향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로는 이국적·성적 이미지로서

역』(2002) 594~595쪽 논저목록을 참조할 것.

10) 김영화, 「제주 바다와 문학」, 『영주어문』 제4집(영주어문학회, 2002)에서 제주해녀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다.

11)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반교어문학회, 2002)에 이에 관해 논의되어 있다.

의 제주해녀, 둘째로는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 셋째로는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 등이 그것이다.

1) 이국적·성적 이미지로서의 제주해녀¹²⁾

현대소설에서 제주해녀를 그린 작품으로는 김정한의 「월광한(月光恨)」(1940)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김정한(1908~1996)은 경상남도 동래군 출신으로서, 1933년부터 1940년까지 남해도(南海島)에서 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작품을 집필했던 적이 있다. 「월광한」은 그 때 썼던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그 공간적 배경이 제주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주해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소설은 화자(話者) ‘나’가 여름철에 S포구로 출장 나갔다가 자맥질하던 해녀들을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해녀들은 일정 기간 제주도를 떠나 ‘바깥물질’을 하는 ‘출가(出稼)해녀’의 무리였다. ‘은순이’는 그 무리의 일원인 ‘젊은 아주망’이다. ‘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며칠 뒤 그것을 계기로 ‘이여도’에 함께 가자는 데 서로 의기투합하여 둘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작품의 내용이다.

(...) 제법 위즈워스의 ‘헤브라이 먼 섬에서 들리는 버꾸기 소리’¹⁾ 따위의 시구(詩句)를 웅얼거리면서 포구를 향해 터덕터덕 땀심 풀린 걸음을 걸었다.

그러자 마침, 가던 날이 장날이란 격으로, 적은듯 하여 나는, 오리떼같이 한창 자맥질에 바쁜 해녀(海女)의 한 무리를 발견하였다.

해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찍부터 흥미를 가지고 궁금이 여겨 오던 나는, 갑자기 힘을 얻어서 그들의 일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뜬 마음으로, 그러나 걸으로는 짐짓 예사롭게 자갈을 차며 갔다.

깎아지른 듯한 낭떨어지 밑이었다. 갯바람에 축축한 너럭바위가 있고, 조

12) 이 부분의 일부 내용은 필자가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여성—외지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호(영주어문연구회, 1999)에서 논의한 사항과 중복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금 떨어져서 아이들의 주먹만큼씩 한 미끄러운 청조약돌 밭에 그들의 옷과 구덕(바구니)이 올망졸망 놓여 있었다.

나는 나른한 다리를 너럭바위 위에 내뻗고서, 그들이 일하는 바다로 눈을 돌렸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무턱대고 세기부터 했다. 그러나 쏘대는 병아리를 세면 셋지 세어질지 만무한 일. 요리조리 날렵하게 빠져나가길 잘할 뿐더러 여태껏 망태와 킅을 밀며 물위에 떠다니던 놈이 불각시 허리를 꺾치고서 휘뚱휘뚱 뒤넘기를 치고 나면 이따라 동글한 엉덩이와 앙바툼한 다리마저 가뭇없이 물속으로 살아져 버렸다. 이놈인지 저놈인지 분간을 못하게 여기저기 푸뚱푸뚱 솟굴아 올랐다. 모두 다 수건으로 머리를 등친 게며, 얼굴을 거의 반이나 덮은 수경 모양이며, 획—획 하는 그들 특유의 한숨소리들이 아무리 꼭 다시 노려 봐도 열놈이면 열놈이 죄다 마찬가지로만 같다. 물론 어느 게 아주망이며 어느게 비발(처녀)인지도 알 수 없다.¹³⁾

여기에서는 해녀에 대한 낭만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인 워즈워드의 시를 읊조리면서 바닷가를 걸어가던 도중에 작업중인 해녀의 무리를 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가롭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동글한 엉덩이와 앙바툼한 다리’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화자는 해녀의 여성적인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런 면이 더욱 구체화된다.

결코 처음부터 무슨 데된 궁궁이샘이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입때껏 궁궁하게 여겨오던 그들의 생활과 풍속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에 끌려서, 나는 그들이 어서 물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들은 이쪽을 향해서 악어떼처럼 헤엄질을 치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어떤 불안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수경을 건 얼굴들이 모다 사내들에게 지지 않게 억세었을 뿐더러, 마치 내가 무슨 큰 값진 고기덩이냐 되는

13) 김정환, 「월광한」, 『문장』 1940년 1월호, 58~59쪽.

듯이 앞을 다투어가며 몰려 왔기 때문에.

그러나 수경을 벗고 물에 나선 그들은 결코 무서운 악어도 아니고, 우악스런 난봉꾼도 아니었다. 말소리들이 다소 높으기는 하고 물론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되 어딘지 역시 여자다운 구비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들의 사팍진 아랫둥이에는 단단한 가운데도 부드러운 선이 숨쉬고 있었다.¹⁴⁾

화자는 ‘해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찍부터 흥미를 가지고 궁금이 여겨 오던’ 사람이었기에, ‘입때껏 궁금하게 여겨오던 그들의 생활과 풍속’을 확인하고 싶어서 해녀들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그러한 지적 탐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성적인 매력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어딘지 역시 여자다운 구비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들의 사팍진 아랫둥이에는 단단한 가운데도 부드러운 선이 숨쉬고 있었다’는 표현에서도 그것이 확인된다. ‘궁궁이섬’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다. 화자는 해녀의 무리 중에서도 특히 은순이에게 관심을 가진다. 은순이는 남편이 있는 젊은 해녀다. 화자는 “옥으로 깎은 듯이 푹터분한 얼굴에는 붉은 빛이 저절로 더해 오고, 매무시 좋은 흰 저고리 밑의 동그란 허구리며, 아기자기한 몸짓이 (...) 흥겹고도 예쁘다”¹⁵⁾며 은순이의 여성적 매력을 흠뻑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은순이는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으로 대상화된”¹⁶⁾ 것이다.

이처럼 ‘월광한’은 1930년대 후반 바깥물질을 하는 제주해녀들의 생활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호기심으로 접근한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주해녀가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적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이라면 해녀항일투쟁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을진대, 해녀들의 고통스런 삶에 관해서는 작가의 눈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위의 책, 59쪽.

15) 위의 책, 72쪽.

16) 송명희,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 『현대소설연구』8호(현대소설학회, 1998), 431쪽.

허윤석의 「해녀」(1950)에도 제주해녀가 그려진다. 허윤석(1915~1995)은 경기도 김포 출신의 작가로, 그가 언제 제주도를 방문했는지 제주도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허윤석의 「해녀(海女)」는 1948년 4·3 당시 토벌군으로 제주도에 상륙한 ‘김 중령’의 해골부대가 작전 수행 중에 겪는 일련의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다.

이 소설에는 두 명의 ‘해녀’가 등장한다. ‘분이’와 ‘유모’가 그들이다. 이 해녀들을 통해 우선 느끼게 되는 인상은 원시성(原始性)을 지닌 이국적 여성의 이미지다.

최 상사는 느티나무를 돌아서 굴뚝 머리로 젊은 해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해녀는 옷이라고는 치마를 걸친 것뿐으로 붉은 팔을 그대로 늘어 있었다. 해녀치고는 얼굴이 화안할 뿐만 아니라 산짐승이 사향냄새를 지니듯 젊은 살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 더더욱 좋았다.¹⁷⁾

재산무장대(在山武裝隊)의 아내인 ‘유모’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 치마만 입고 윗도리를 걸치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4·3의 와중이어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젊은 여성이 윗도리를 입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간적 배경이 10월말이나 11월¹⁸⁾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점은 다분히 등장인물이 원시성을 지닌 이국적인 여성임을 부각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분이’의 성적(性的)인 면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작가가 제주해녀에게 부여한 그러한 측면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홍분한 손길에 등을 집히운 분이는 일언반구가 없이 고두령이 하자는 대로 몸을 치레했던 굴가지를 벗어 젖히고 대밭을 향해 앞을 섰다. 이런 밤이면 분이는 으레껏 사내들을 위하여 살을 내어맡겨야 할 때가 왔다고만 알았다. 네 사내가 분이를 따라 대밭으로 들어서자 산허리를 스쳐가는 운무가 때 맞춰 달을 묻어 주었다.(중략) 분이는 즐겁지도 않은, 슬프지도 않은 밤

17) 허윤석, 「해녀」, 『문예』 1950년 2월호, 24쪽.

18) 소설에 ‘여수순천사건 직후’라는 표현이 있다. 여수사건이 1948년 10월 20일 발발했으니, 「해녀」의 시간적 배경은 그 이후라는 것이다.

이었다. 다만 고두령 외에 세 사내의 각각 색다른 피부의 비밀을 다시금 느끼면서 몸을 겨우 가누었을 때는, 벌써 달빛은 곱바위 뒤까지 비치었고 동해안쪽으로 들어오는 탐조등의 강한 광선이 산허리를 걸쳐 무지개발 드리우듯 했다.¹⁹⁾

여기서 ‘분이’는 위안부(慰安婦)와 다름없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어떤 강제가 주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으로 개방적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그녀에게 성적인 도덕률은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분이는 고 두령을 비롯한 네 사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즐겁지도 않지만 슬프지도 않다고 여긴다. 더욱이 그녀는 ‘고 두령 외에 세 사내의 각각 색다른 피부의 비밀을 다시금 느끼기까지 한다.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상식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남녀간 육체관계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결합이라는 얘기다. 아무리 혼란의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원시적 상태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서술은 용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해녀」에는 분이가 굴나무 가지를 꺾어 춤추며 노래부르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는 마치 미개인들의 민속춤을 떠올리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분이나 빨치산들이 토벌군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몸을 위장할 때도 굴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굴 가지로 위장을 하고 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것은 실상과 거리가 먼 개연성이 없는 상황 묘사다. 굴이 제주도 특산물이긴 하지만 194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지천에 깔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람들이 굴나무를 꺾어 춤추는 도구로 삼는 경우도 없다. 그런데도 이 소설에서 마치 온 천지가 굴나무로 뒤덮여 있으며, 제주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그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비사실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왜곡된 서술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분히 작가가 제주도의 이국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이국적인 면을 드러내되, 그의 판단으로 제주도가 뭔가 원시적이라는 느낌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며, 그것이 왜곡된 상

19) 위의 책, 15~16쪽.

황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의 작가인 황순원(1915~2001)은 1952년 8월에 제주도에 다녀간 적이 있다.²⁰⁾ 『비바리』(1956)는 그때의 제주체험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비바리』는 제주도 해녀 ‘비바리’와 1·4후퇴 때 제주도에 피난온 육지청년 ‘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보목마을 해녀 ‘비바리’는 피난차 서귀포에 와서 살고 있는 육지청년 ‘준’에게 접근한다. 이 둘은 모두 스물을 갓 넘긴 나이다.

고개를 돌렸더니 웬 잠녀 하나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금방 물에서 나온 물기가 가시지 않은 어깨에 감물 들인 형겅조각을 하나 걸치고는 한 손에다 전복과 소라가 들어있는 망태기를 들고 있었다. 그 전복이나 소라를 팔아달라는 것이었다.²¹⁾

처음으로 ‘비바리’가 ‘준’에게 접근하는 장면이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비바리는 ‘첫만남’이면서도 전혀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더구나 그녀는 옷을 갖춰 입은 상황도 아니다. 이 인용문에 나타난 해녀의 의상은 ‘어깨에 감물 들인 형겅조각을 하나 걸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표현에서 조심성 없는 비바리의 성격도 파악되거나, 한편에서 보면 이는 제주해녀에 대한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해녀복이 물론 일상복보다는 노출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형겅조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주해녀들을 미개하고 원시적이라고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비바리’는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는 여성이다. 그녀는 준이 혼자 먹을 감고 있는 곳에 거리낌없이 뛰어들어간다. 그래서 준이 놀라 몸을 가리며 도망치게 만든다. 더욱이 그녀는 아래와 젖만 가린 반라(半裸)의 몸을 그대로 남자에게 노출시킨다. 여자는 ‘야생의 처녀’이고 남자는 ‘문명의 총각’이라는 시각이 엇보인다. 이

20) 1952년 9월에 제주도에서 발간된 『신문화』 제2호 「문화다방」에는 “바루 전 달에는 시인 조병화 씨, 황순원 씨가 다녀가셨는데”(29쪽)라는 언급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윤,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 『제주작가』 제5호(실천문학사, 2000)를 참조할 것.

21) 황순원, 『비바리』, 『문학예술』 1956년 10월호, 16~17쪽.

런 시각에서는 대개 문명의 사람들이 야생의 사람들을 문명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되기 쉽다. 한반도 사람의 우월감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날도 섭섭으로 건너가 물리지 않은 낚시를 드리워 놓고 있노라니까, 오래간만에 찌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준이가 한눈 파느라고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주인 집 영감이 보고 알려 주었다. 낚싯대를 잡는 순간 벌써 엔간히 큰 것이 물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낚싯대가 마구 휘었다. 주인 집 영감이 달려 와 맞잡아 주었다. 둘이서 조심조심 끌어올렸다. 그런데 낚시에 물린 것이 얼핏 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준이는 그만 낚싯대를 내 던지며 뒤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사람의 머리인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죽은 사람의 머리통이 아니요, 산 사람의 것이었다. 머리 다음에 동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독으로 올라서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잠녀였다. 잠녀 중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비바리인 것이다. 입에 낚시를 물고 있었다. 입술 새로 피가 번져 나왔다. 비바리는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아랑곳 않는 듯이 준이만을 바라보았다. 검은 속눈썹 속의 역시 검은 눈이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고 있었다. 이윽고 비바리는 제 손으로 낚시를 뽑더니 그 피묻은 입술에 뜻 았았던 미소 같은 것을 띄우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는 맵시 있는 선돛대를 보이면서 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²²⁾

해녀 '비바리'가 마치 인어와 다름없이 묘사되고 있다. 실소를 자아낼 정도로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²³⁾ 해녀가 제아무리 수영에 능수능란하고 바다를 삶터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낚싯바늘을 일부러 입에 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구나 20대 초반의 처녀가 남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현실감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설 속의 제주해녀 '비바리'는 이처럼 정신적으로 미숙한 야생의 처녀로 황순원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22) 위의 책, 21~22쪽.

23) 김영화, 「제주 소재 외지인의 문학」, 『변방인의 세계』(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159쪽.

정한숙(1922~1997)은 평안북도 영변 출신이다. 그는 몇 차례 제주도를 찾았으며, 제주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설화·민요 등을 전해 들었던 것²⁴⁾으로 알려져 있다.

「해녀」(1964)는 해녀들의 절실한 삶과 운명이 비교적 잘 그려진 소설이다. 해녀가 제주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작품이 반드시 제주도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여러 차례 제주를 방문했고 「석비(石碑)」(1959)·「이어도(IYEU島)」(1960)·「굴밭 언덕에서」(1968)와 같은 제주도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여러 편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녀」 역시 제주도 관련 작품으로 여겨진다. 열아홉 살의 ‘효순’이 이 작품에 나오는 해녀다. 효순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형부를 모두 바다에서 잃었다. 그러기에 그녀를 비롯한 그 마을 해녀들이 모두 뱃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효순은 뱃사람인 ‘성균’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배를 그만 탈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몸을 허락한다. 결국 배를 타고 나간 성균을 기다리면서도 다시 물질에 나서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난다. 운명적 삶이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주해녀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엿보인다. 물론 문학작품에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뉘앙스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땃줄에서 떨어진 우리들은 바닷물에서 배꼽이 아물었고 가시 같던 잔뼈는 바닷물 속에서 산호가지모양 살쥔 올라 피부는 이젠 고기비늘 모양 탄력이 생겼다.²⁵⁾

너울거리는 해초 밑엔 고기떼가 뿔뿔이 뿔어 놓고 간 머물거리는 알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잔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며 물구비를 타고 떠 흐른다. 그 뒤에는 언니도 귀네도 옥순이 어머니도 그리고 마을 아낙네들이 수경을 쓰고 헤엄치며 지나갔다. 바다 물속에선 그녀들의 살결도 유난히 희어 보인다.

수경은 어안(魚眼), 팔과 다리는 지느러미…….

24) 위의 책, 163~164쪽.

25) 정한숙, 「해녀」, 『문학예술』 1964년 5월호, 16쪽.

틀림 없이 그것은 바다고기 못지 않는 고기때였다.²⁶⁾

피부가 ‘고기비늘모양 탄력이 생겼다’고 하는가 하면, ‘수경은 어안(魚眼)’이고 ‘팔과 다리는 지느러미’와 같아서 ‘바다고기 못지 않는 고기’라고 해녀들을 묘사하고 있다. 절반은 물고기와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이 점은, 다음에 제시한 같은 작가의 소설 「굴밭 언덕에서」의 예에서 보듯, 제주해녀가 ‘인어’와 비슷하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섬마을의 처녀들도 청년들에 못지 않게 모험심이 강했다. 어렸을 때부터 전설과 설화를 믿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녀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유일한 무기란 해녀(海女)라는 이름뿐이다.

섬 처녀들은 수많은 나날을 물 속에서 살아야만들 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들의 흰 팔은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닮았고 그녀들의 긴 다리는 해심을 쥔 줄 아는 꼬리를 본받아 이제는 해풍도 파도도 겁날 것이 없었다. 그녀들은 지칠 줄 모르는 인어(人魚)가 되었다.²⁷⁾

황순원의 「비바리」와는 달리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인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거친 바다를 헤치며 당차게 살아가는 제주해녀의 강인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뉘앙스를 보면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나온 제주해녀에 관한 현대소설들은 김정한·허윤석·황순원·정한숙 등 모두 외지인 작가에 의해 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작가들은 대체로 제주해녀를 낭만적인 시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해녀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주해녀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형상화보다는 그들을 이국적 이미지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제주도 사회 전반이나 해녀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존재를 작품 속에 담아내

26) 위의 책, 39쪽.

27) 정한숙, 「굴밭 언덕에서」, 『제주도』 36호(제주도, 1968), 264쪽.

려다 보니 제주해녀가 낭만적이고 피상적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서 살펴본 소설들은 한국문학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 작가들의 작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제주해녀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그것이 일반독자들에게 인식되는 제주해녀의 모습이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굳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상징되고 있기도 하지만,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실재와는 달리 새로운 이미지로 재생산되고 있는 점²⁸⁾도 외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는 해녀에 대한 낭만적이고 피상적인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생활인 · 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외지인 작가들이 아닌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제주해녀가 형상화된다. 이는 물론 제주 출신 소설가의 등단이 1970년대 이전에는 드물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²⁹⁾ 제주 출신 작가들의 경우 지역사회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던 외지 출신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고시홍(1948~)의 단편소설 「표류하는 이어도」(1980)는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농사와 물질작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주해녀가 주인공이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30대 중반인 과부 해녀의 힘든 생활이 그려진 작품이다.

‘억순’과 ‘빌레’는 친구 사이로, 둘 다 과부 해녀였다. 그런데 빌레는 첩이 되어 조금 편히 사는 반면, 억순은 스물두 살부터 과부가 된 이후 줄곧 두 아이들 키

28)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제15집(제주학회, 1998), 153~193쪽 참조.

29) 1970년대 이전에 제주 출신으로서 등단한 소설가는 1940년대에 활동했던 이영복(1942년 등단)·오본독인(1943)·이시형(1944)과 1960년대 이후의 강금중(1963)·오성찬(1969)·현기영(1975) 정도다.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참조.

우며 혼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역순이의 삶은 빌레보다 훨씬 고달픈 수밖에 없었다.

해산물을 따내기에 안성맞춤인 너댓 물찌 때부터 계속 높새바람이 불어 닥쳤던 것이다. 연일 휘몰아치는 높새바람이 역순이의 애간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

남편 제사가 내일인데 아직 모두 터에 놓았다. 여차 하면 숯농만 떠놓고 제사를 지내게 됐다. 달포 안으로 다가선 시아버지의 담چه일이며 비료값, 을선이 남매의 사친회비, 금년엔 해묵은 초가지붕도 갈아덮어야 한다. (...) 지난번 태풍 때 무너진 돌담도 여태 그냥 있다.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돌담 구멍만큼이나 많았다. 말 모른 돈이 발뺌고 앉아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돈 나올 구멍이라곤 이승과 저승의 문턱, 바다 밑의 설드락밖에 없다.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숨통을 뒤통박 하나에 저당잡혀 놓고 해물을 건져 낼 수 있는 바다 속의 토지뿐이다. 겨울이 지날 때마다 초가지붕을 덮썩우는 은빛 모래가 사금파리였으면 했다. 바다를 잠재우는 수면제만 되었어도 좋겠다. 뒤통박을 여 삼아 바닷속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만 해 줘서도 여한이 없겠다. 바다만 숨기척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등짐으로 지어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뚝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이 모두가 역순이에게 있어선 금은보화였다. 열 개의 발가락으로 하늘을 건어차며 물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숨통이 부어오르는 고통이 따를망정, 바다에서 거둬들이는 것들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비료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에 더욱 소중한 보물이었다.³⁰⁾

인용문에서 보면, 생활인이자 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해녀에게는 바다가 바로 생명이다. 역순에게는 남편 제사 비용, 시아버지 담چه 비용, 자녀 사친회비, 비료값, 일꾼 품삯 등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돌담구멍만큼이나 많았다.’ 그것들은 ‘바다 속 토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우뚝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등 해산물이 모두 해녀 역순이에게 있어서는 ‘금은보화’요 ‘소중한 보물’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녀에게 물질작업은 ‘열 개의 발가락으로

30)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대통령의 손수건』(전예원, 1987), 132~133쪽.

하늘을 걷어차며 물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숨통이 부어오르는 고통이 따르는 버거운 일이었다. 더구나 최근 얼마 동안 높새바람 때문에 물살이 거세어 물질하러 못 들어갈 형편이었으니, 역순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 후 날씨가 좋아지자 그녀는 비로소 물질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

역순이는 동료들의 허우젯소리를 뒤로 하고 한참 난바다 쪽으로 나간 후에야 작업을 시작했다.

호오잇!

수면 위로 몸을 끌어올린 역순이는 휘파람을 불 듯 틀어막았던 숨통을 터뜨렸다. 하얀 포말이 수면 위로 흩어졌다. 다시 하늘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물구나무를 서듯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 들녘길을 줄달음치듯 바다 밑바닥을 더듬어 나갔다. 숨통이 저러오기 시작했다. 용왕님은 바다 속 어딘가에 산다 했으니, 물 속에도 숨돌릴 곳이 있을 법한데 해초의 숲과 물고기뿐이었다.

—생복도 큼도 크다. 암천복인지 수천복인지 모르주마는...

껍질이 넓둥글진 겉로 봐서 암컷인 듯 했다. 수천복은 껍질이 움푹여져 있다. 역순이는 전복 하나를 따내기 위해 거둬해서 수면 위와 바다 밑을 오르내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곤두박질쳐댔다. 설드럭 틈에 박혀 있어서 힘이 들었다.

비창을 거머쥐고 대엿 차례 자맥질을 하고 나서야 전복 하나를 따냈다.³¹⁾

역순이의 물질작업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물 속 깊이 잠수하여 전복을 발견하였지만 당장 그것을 딸 수는 없다. 숨통이 저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러 차례 수면 위와 바다 밑을 오르내려야 했다. 마침내 전복을 딴 역순이는 그만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말았다. 헤엄쳐 나오려는데 뒤웅박(테왁)의 작은 구멍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여 점점 가라앉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혼자 떨어진 채 작업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의 살려달라는 외침이 일행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전복, 소라 등이 담긴 망사리가 점점 가라앉아 갔지만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그것을 버릴 수

31) 위의 책, 150쪽.

도 없었다. 역순이는 혼백상자와도 같은 뒤옹박을 끼안은 채 쉬지 않고 다리를 돌려댄다. 「표류하는 이어도」는 이렇게 제주해녀의 물질작업이 고통을 수반함을 물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행위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현기영(1941~)의 『바람 타는 섬』(1989)은 1932년에 일어난 해녀항일투쟁이 중심사건이지만, 해녀들의 생활상이 잘 재현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제주해녀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편에는 출가해녀들의 삶의 양상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바깥물질에 나선 ‘여옥’ 등은 울산 부근의 목섬 주위에서 작업을 하였다. 섬 주위에 스무 척 가량 떠 있는 해녀배마다 여남은 명의 해녀들이 딸려 물질작업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잠녀들은 질펀하게 밀려오는 밀물을 타고 점점 얇은 데로 이동하며 작업했다. (...) 목섬 근처를 일터로 삼은 잠녀들이 거진 250명 가량 되는데, 그들은 해안가를 따라 떠떠떠 자리잡은 처용, 성외, 해창 같은 조그만 포구에 방을 빌어 살면서 날마다 물때 맞춰 이 근처로 물질 나오곤 했다.

목섬의 밀뿌리가 잠뽕 물에 잠기자 작업 끝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넓게 흩어졌던 잠녀들이 자기네 배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했다. (...) 여옥네 동아리가 먼저 배에 닿았다. 화덕에 장작을 피우던 무생이 얼른 뱃전에 작은 사닥다리를 내리고 채취물이 가득 든 태와 망사리를 끌어올려 주었다. (...)

이씨와 무생이의 도움을 받으며 잠녀들이 잇따라 배 위로 올라왔다. 모두 한결같이 푸르맹탱 몸이 언 그들은 기갈든 사람처럼 정신없이 화덕불에 덩벼들었다. (...) 장작불에서 연방 불뚝이 탁탁 튀어올라 벗은 살에 떨어지건만 감각이 마비되어 뜨거운 줄 몰랐다.³²⁾

초여름인데도 수온이 차가운지라 해녀들이 무척 추위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주바다에서는 1시간씩 하루 4~5차례 물질하던 제주해녀들이 울산바다에서는 30분씩 8차례 작업을 하게 된다. 몸이 언 해녀들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정신없이 화덕불이 있는 곳으로 덩벼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통스런 바깥물질

32) 현기영, 『바람 타는 섬』, 187~188쪽.

에 출산을 앞둔 임신부까지 나서고 있다.

그녀(덕순이: 인용자)는 태왁덩이처럼 팽팽하게 부른 만삭의 배를 안고 간신히 배에 올랐는데, 미처 화덕불 앞에 당기도 전에 썩은 짚덩이처럼 무릎 꿇고 쓰러지며 눈을 하얗게 뒤집는 것이었다. 모두들 기겁하여 덕순에게로 달려들었다. 더운물을 전신에 끼얹고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짹 단한 어금니를 손갈로 떼어 더운물을 먹이자, 오디 먹은 입처럼 새까맣게 질려 있던 입술에 차츰 생기가 돌아왔다. 모두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에이그, 그 조캐, 몸도 무거운데 쉬지 않구서! 태왁같이 물에 동동 뜨는 그 배로 별면 얼마나 별겠단구, 쫓쫓.”

하고 이씨가 곱방대에 담배를 피워 물며 혀를 찼다.³³⁾

만삭의 임신부가 바깥물질에 참여하여 생명을 걸다시피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덕순이’는 점심때 첫 진통이 왔는데도 물질을 계속했다고 털어놓는다. 결국 동무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던 덕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미처 집으로 옮길 겨를도 없었다. 대바구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보릿짚을 길바닥에 깔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기에 이른다. 태줄은 물질작업도구인 미역낚으로 꿸었다. 길에서 낳은 여자아이니까 ‘길녀’라고 부르자고 했다. 그렇게 길에서 딸을 낳은 덕순이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녀는 일주일 만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물질작업을 재개한다. 보릿짚을 깎아 작은 대바구니를 아기구덕으로 대신 사용했는데, 그녀가 물질하는 동안에는 남자 사공이 배 위에서 아기를 돌봤다.

시린 몸을 녹이려고 물에 나온 잠녀들이 벌떼같이 불턱에 덤벼들 때, 제일 경황없이 허둥대기는 역시 아기 딸린 덕순이었다. 자기 몸도 녹여야지, 아기한테 얼어붙은 젖꼭지를 물릴 수 없어 끓는 물에 쌀가루를 풀어 미음을 만들어 먹여야지, 불턱에서 탁탁 튀는 불똥이 발에 떨어져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녀의 발등과 발목에는 화상 입은 거뭇거뭇한 상처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33) 위의 책, 188쪽.

한번은 동해안을 따라 오르고 내리는 큰 연락선인 경신환이 바로 옆을 지나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여육네 배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 서슬에 대바구니에 들어 있던 아기가 그만 물로 굴러떨어진 적이 있었다. 아기가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던 순주가 뛰어들어 아기를 번쩍 쳐들어올렸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던 것이다. 길에서 낳은 아이라 역시 목숨이 모질었던 모양이다.³⁴⁾

갓난아이를 데리고 물질작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기막힌 상황들이 서술되고 있다.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그것은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제주해녀의 보편적인 실정이었음을 이 작품에서는 말하고 있다.

해녀들이 바깥물질에서 아기를 낳고 어렵게 키워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바깥물질을 가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았다. 『바람 타는 섬』에서도 아기 업개 소녀를 고용하여 물질을 간다. 그렇게 데리고 간 어린아이가 여남은 명이 되었으니, 어떤 때는 아기를 잃어버려 소동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행원댁’의 네 살 난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함께 놀다가 사라져버려 모두를 대경실색하게 하기도 했다. 아기는 엄마를 마중한답시고 포구까지 나갔다가 울다 지쳐서 물가 옆 바위틈에 끼여 앉은 채 졸고 있었던 것이다.

해녀들은 모진 바람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작업을 하다가도 강풍이 몰아칠 기운이 느껴지면 지체없이 철수해야 했다. 해녀들은 서둘러 함께 노를 저어야 살아날 수 있었다.

잇따라 밀어닥치는 파도는 흰 갈기를 날리며 달려오는 성난 말때 같기도 하고 흰 이빨을 드러낸 상어때 같기도 했다. 배가 좌우로 위태롭게 기울어질 때마다 뱃전에 부딪친 파도는 더러 배 안으로 넘어들어오기도 하고 허영게 비말을 날려 소낙비처럼 사람들 머리에 쏟아붓기도 했다. 빈 돛대에 바람이 찢기는 날카로운 소리, 여기저기서 느슨해진 거말뚝이 빠적거리는 소리…… 배가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생생한 공포감, 그러나 공포를 느끼는 것도 잠깐

34) 위의 책, 264~265쪽.

일 뿐, 잠녀들은 심한 멀미 기운에 휘둘려 정신을 가눌 수가 없었다.

앙다물었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새어나오더니, 드디어 속에 넣은 것이 넘어올라왔다. 누군가 먼저 울컥 하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나도 무섭게 토악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쓸개물까지 쫓 먹은 뱌까지 다 뒤집혀 올라오는 듯이 괴로운 토악질이였다.³⁵⁾

공포를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물질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만큼 제주해녀들의 물질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작업이고, 바깥물질을 나갈 경우에는 그 고통이 더욱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쉬어 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거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제주해녀들에게 그것은 숙명이었다.

오성찬(1940~)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2000)는 제주도의 어촌사람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그려진 중편 소설이다. 여기에는 어촌사람들 생활의 한 영역으로 제주해녀들의 생활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우식 할머니’는 뛰어난 해녀였다. 열두 살 때 애기상군이 되고, 열일곱 살에 처음 바깥물질을 시작했던 할머니는 여든이 넘도록 물질을 한다. 할머니는 이른바 ‘되집배기’로 불렸다. 되집배기란 상군 중의 상군해녀로, 다른 사람은 한 짐 묶을 켤 때, 도루 가서 저울 만큼 갑질의 역량이 있는 해녀를 말하는 것이다. 할머니의 전언을 통해서 제주해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바깥물질 다녀온 일화 등이 소개된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영등달 보름이 지나서부터 이른 무리가 떠나기 시작해서 늦어도 3월 보름 전까지는 모두들 떠났기 때문에 이때는 섬이 거의 비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육지 물질에 타고 가는 배는 모두가 풍선. 이런 배에 열여섯, 열일곱, 큰배에는 스물까지도 잠수들이 담뱃 탸다. 풍선은 하늬바람이나 갈바람이 술술 불어주면 이틀 사흘 만에 육지에 닿을 수 있었으나 셋바람이나 거세게 불면 섬마다 포구에 대면서 쉬엄쉬엄 갔기 때

35) 위의 책, 285쪽.

문에 어떤 때는 보름도, 스무날도 걸렸다. 외사촌 오빠는 새로 지은 배를 연락선 고물에 밧줄로 매달고 청진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는 노를 저어 두만강을 건넜다. 청진에서 두만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꼬박 사흘 길. 배에 탄 아무도 가 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듣던 미담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 기대 반, 두려움 반, 시종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행은 선발된 상군들로 모두 열 명 한 동아리였다.³⁶⁾

제주해녀들은 풍선(風船)을 타고 짧게는 2일, 길게는 20일 걸려 육지에 도달하고 있다. 바깥물질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거기를 오가는 행로마저도 험난했던 것이다. 11명의 상군해녀들로 구성된 바깥물질 동아리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 미담의 땅에 당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할머니의 일행은 주로 다시마를 채취하는 일을 했다. 오성찬은 제주해녀들이 그곳에서 이른바 '기릿물질'을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기릿물질이란 3관 5백 매 무게의 무거운 납을 추 삼아 손에 잡고 쓴 살갗이 물 속으로 들어가서는 어쨌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다시마를 따내는 작업수단이었다. 손에 잡고 들어간 연철추는 바닥에 닿는 대로 놔버리면 배 위의 사람이 줄을 당겨 끌어올려 버린다. 물 속의 사람은 작업을 하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야야 미리 배에서 내려뜨려 놓은 장대를 쫓긋쫓긋 당겨 신호를 하고, 그러면 다시 배 위에서 장대를 끌어당겨 사람을 건져내었다. 낚선 이방에서의 이렇듯 위험하고 무모한 작업, 이거야말로 순 우격다짐, 바다와의 싸움이었다.

—그런디 끌어올릴 때 배 위의 사람이 약간만 굼뜨게 행동해 버리면 물속 사람은 숨이 차서 복을 먹게 되고, 물위에 올라온 다음에도 물도 별경, 산도 별경, 그날은 아무 일도 못해시네…….³⁷⁾

그런데 이 '기릿물질(ギリガツキ)'은 원래 일본 해녀들이 행하는 물질 방식이

36) 오성찬,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푸른사상, 2001), 253쪽.

37) 위의 책, 254~255쪽.

다. 일본 해녀들은 부부가 배 한 척을 타고 나가서 아내는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남편은 배 위에서 장대를 당기는 기릿물질을 치른다.³⁸⁾ 물론 일본 해녀들의 물질 방식을 제주해녀들도 따라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별다른 배경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제주해녀의 '기릿물질' 장면을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제주해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구주에 물질 갔다가 빠져죽은 할머니의 동갑내기 육촌 '춘자'에 관한 사연도 이 작품에 소개된다. 그녀는 열여덟 살에 울산으로 첫 바깥물질을 나간 이후 국내외 여러 곳에 바깥물질을 다녔다. 그러다가 일본 와카야마에 물질을 갔을 때 그곳 중개상(아이가 셋이나 달린 유부남)과 눈이 맞아 거기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딸 하나 낳고 살던 중 남자가 본처에게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 딸 하나를 키우면서 물질작업으로 연명하던 그녀는 결국 바닷속 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 소설에는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해녀가 되기는 죽어도 싫다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새벽침에 무작정 대처로 달아나버린 해순이”³⁹⁾와 “어머니 따라 잠수가 되기 싫다고 대처로 나가서 술집작부가 되었다는 벼랑가 ‘벌래낭개집’ 봉순이”⁴⁰⁾에 관한 언급이 잠깐 나온다. 해순이와 봉순이처럼 젊은 여성들의 해녀 기피 현상은 실제로 제주도의 각처에서 두루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해녀의 생활이 무척 고달프다는 것과 함께 해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 상황을 소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생명을 걸고서 숙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현대소설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양상이 낭만적 인식에 따른 이국적·성적 이미지와 병행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는 구체적으로 조명되었다.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에서는 연안바다에서 물질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해녀의

38) 김영돈, 『제주의 해녀』(제주도, 1996), 480쪽.

39) 오성찬, 203쪽.

40) 위의 책, 295쪽.

고달픈 삶이 그려져 있고,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과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에서는 연안바다에서의 물질과 바깥물질이 두루 묘사되고 있다. 특히 『바람 타는 섬』은 제주해녀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제주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지인 작가들과는 달리 제주 출신 작가들은 기본적인 조건에서부터 낭만적 인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제주 출신 작가들의 경우 자신의 가족과 이웃사람이 바로 생활현장의 해녀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해녀가 생활인이요 직업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3)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

문학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제주해녀의 생활에 대해서도 역사적 시각을 토대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1986)과 오경훈의 「세월은 가고」(1989),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1991)는 1930년대 해녀항쟁과 해방 직후 4·3을 겪는 제주해녀들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볼 때 유사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 시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현길언(1940~)의 단편소설 「껍질과 속살」은 역사에 희생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1930년대 제주 바다에서 일본 잠수기선들이 해산물을 남획하자 이에 분노한 해녀들이 잠수기선을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였는데, 그 때문에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았던 ‘송순녀’ 여인이 해방 후 4·3 때에도 다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형상화된다. 이 작품은 특히 1930년대에 있었던 해녀시위가 항일 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 해녀들의 생존을 위한 순수한 행동을 왜 공산주의 이념의 껍질로 씌워놓았느냐 말입니다. 더구나 어떤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해석되었다면 더욱 안 되지요. 그 해촌에서 미역이나 뜯고 소라나 잡는 여자들

에게 무슨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필요했겠습니까?”⁴¹⁾

해녀들의 투쟁이 ‘순수한’ 것이었음이 강조되고 있다. 미역이나 뜯고 소라나 잡는 해녀들에게 무슨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껍질’은 이념으로 씌워져 있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고통이 담겨있다는 논리다. 이른바 남도리 해녀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송 여인의 삶을 추적하는 ‘성 기자’는 개인이 맞닥뜨리는 고통스런 상황은 무시한 채 거기에 지나치게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면, 해녀 사건은 민족 이념에 투철한 여인들의 항일운동도 아니었고, 우국 청년들에게 영향받은 반일 저항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여성해방운동이나,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들의 싸움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생존을 지탱하려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초적인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해녀가 되어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작업을 해본 체험이나, 해녀로서 자신의 채취물을 제 값을 못 받고 팔아야 하는 분함이나, 자신의 어장을 잠수기선에 빼앗기는 그 절박함을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위하여 사실을 미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어떤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허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⁴²⁾

이념을 위하여 사실을 미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녀사건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송여인이 되어 보세요. 역사적 발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개인의 삶입니다. 역사를 이념화할 때 개인의 진실은 은폐되기 쉽고, 더하면 개인의 삶 자체를 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 그 허구성이 드러나지만, 개인의 진실은 영원히 진실입니다.”⁴³⁾라고 엄숙히 선언한다. 개인의 진실이 존중되지 않는 역사적 접근이 도

41) 현길언, 『껍질과 속살』, 『남아지는 세월』(문학과지성사, 1987), 198쪽.

42) 위의 책, 200~201쪽.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항변을 진지하게 제기한 것이다. 역사기록의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의 진실을 추적해 보았다는 면에서 이 작품의 의미는 부각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근원적으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념을 위해 사실을 미화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4·3의 비극성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연 개인의 행동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에게 상처를 준 것이 더 큰 문제였는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빨갱이로 몰아 무조건 죽치려던 4·3의 광포성(狂暴性)이 더욱 문제였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오경훈(1944~)의 중편소설 「세월은 가고」는 1930년대의 해녀항쟁과 1948년의 4·3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해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대적 배경 면에서도 그렇고 여주인공의 삶에서도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과 비슷한 점이 많은 작품이다.

열여덟 살에 야학소를 졸업한 해녀 ‘해선’은 일제를 배후에 둔 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 해녀항쟁에 참여한다. 그때 그녀는 ‘도식’이란 청년을 좋아했는데, 도식이 시키는 대로 시위에 앞장섰다가 경찰에 붙잡혀 간다. 주동자를 데리고 추궁당하며 고문 고문을 받으면서도 해선은 끝내 도식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결국 재판 결과 그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반면 고문 받은 해선과는 달리 도식은 행방을 감춘다. 시위사건 직후 사라진 도식을 4년 동안 기다리다가 부모 강요에 못이겨 결혼하였다. 몸을 숨겼던 도식은 사건이 마무리되어 세상이 가라앉자 모습을 드러내었다.

세월은 흘러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도 해녀들에 대한 수탈이 재현된다. 도식은 해녀의 권익을 위해 나서자고 외친다. 그는 격문도 쓰고 회의도 열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더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도지사 면담에서 오히려 법적 절차 무시한 데 따른 추궁만 당하고, 어업조합 사무실에서는 함부로 서류함을 부수는 등 돌출행동을 한다. 곧 새 세상 된다고 그는 날뛴다. 도식은 투쟁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해선에게 하지만 그에게

43) 위의 책, 202쪽.

도무지 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해선은 협조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4·3이 일어난다. 마을이 온통 불바다가 되고 경찰은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야단이다. 해선은 남편이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연행된다. 그녀는 옛날 갇혔던 구치소에서 또 고문을 당한다. 폭도 남편이 있는 곳을 대라는 것이다. 서북 출신 경찰은 살려주는 조건으로 해선에게 동거를 요구한다. 서북 사나이와 동거하던 해선은 그가 외출한 틈을 타 거기서 빠져나와 고향집으로 간다. 이웃 할머니가 입산을 거부하는 남편을 도식 내외가 죽였다는 말을 그녀에게 전해주는데, 아들 종식은 폭도 잡는다며 충놀이를 한다.

이렇게 해선은 「껍질과 속살」의 송순녀 여인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다. 모두 일제 때 수탈에 대한 투쟁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고 4·3의 와중에서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제 때의 투옥 경력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다가 서북청년단 간부의 마음에 들어 잠자리를 같이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상황도 두 작품에서 공히 나타난다. 그런데 「세월은 가고」의 경우에는 해방 직후의 바깥물질의 정황에 대한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물일하기는 엿죽이라마썸. 육지는 빨바당이라 뱃물질하기 막 곳읍니다. 그 날은 어저하다 그리웠는지 캄캄 바당에 배가 닳을 내리게 된 겁주. 물은 깊어 숨은 짧으니 무엇이 보입니까. 닳을 건어 배를 옮겨줬으면 좋으련만 선주는 무슨 셈을 치는 건지 덕판 위에 누워 하늘만 보고 있는 거라마썸. 화가 안 날 수 있수파. 내가 선주한테 가서 대들었십주. 이리 내려와 봅서, 호미질하다 사람 손목 베어질 판인디 물일 할 수 있수파, 못하쿠다, 하고 배로 올라가려니 선주가 태왁을 뺏아 획 던져버리면서 밀쳐내지 않읍니까. 너 같은 년은 아니해도 좋아, 물일할 사람 췌어, 하고 다른 잠수들만 신고 돌아와버리는 거라마썸.”⁴⁴⁾

해방 직후에 있었던 바깥물질에서의 수탈 양상에 관한 언급이다. 바깥물질하는 해녀에 대한 수탈은 일제강점기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선주의 횡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해녀들의 힘겨운 삶이 해방된

44) 오경훈, 「세월은 가고」, 『유배지』(신아문화사, 1993), 12쪽.

조국에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을 이 소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에 대한 수탈과 4·3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4·3의 와중에서 해녀들의 희생이 컸다는 사실 등을 이 작품은 말하고 있다.

현기영의 단편 「거룩한 생애」의 주인공 ‘간난이(양유아)’도 제주해녀다. 그녀는 해녀의 딸로 태어나 열 살에 아버지를 잃고, 밭과 바다로 번갈아 드나들며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일곱 살 아래 어린 동생을 업고 키웠다. 열세 살부터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열일곱 나이에 상군해녀가 되었다. 간난이는 대마도와 주문진 등으로 바깥물질을 다녀오는 등 억척같이 일한 끝에 부친이 잃어버렸던 밭을 되사기까지 한다. 스무 살이 되어 여섯 살 연하의 김직원택 아들과 혼사를 치른 그녀는 모진 시집살이 끝에 물질 나간 일이 계기가 되어 두 달 만에 못짐 싸고 친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시집에서는 해녀의 물질을 천하게 여겨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다. 얼마 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다짐을 단단히 받고 시집에 들어갔으나 곧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 병구완을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그 와중에 물질하여 번 돈으로 남편을 읍내 농업학교까지 졸업시켰지만 남편은 왜놈의 앞잡이가 되기 싫다며 마을에서 야학당 선생 자리를 맡는다. 그녀는 다른 해녀들과 함께 야학공부를 하며 조합의 부당한 수탈을 감시하는데, 찜췌개명과 조선어말살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차에 사건이 터진다.

왜놈들은 그 무렵 화약 연료인 감태라는 해조를 잠녀들로부터 강제로 공출받아왔는데 지정된 수량에서 조금만 모자라도 이백여 잠녀들을 꿰여놓고 단채기합을 주기 일췌였다. 허벅지를 별정게 드러낸 물옷 바람의 여자 몸으로 자갈밭에 무릎 꿇는 벌을 받아야 했으니, 그런 수모가 어디 있을까. 그날은 물결이 높아 채취물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벌을 주려고 하자, 여자들이 아우성치며 달려든 것이다. 조합서기들 중에 한 놈은 쫓지 빠지게 줄행랑을 놓고 한 놈은 붙잡혀 못매를 맞았다. 주동자가 따로 없는 우발적인 사건인데도 간난이는 다른 세 여자와 함께 주동자로 몰려 이십일 구류를 살았다. 네 여자 모두 물건 계량할 때 입회자로 나섰다고 해서 보복을 당한 셈이었다.⁴⁵⁾

조합의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본능적인 저항을 한 것뿐인데, 그로 인해 구류를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해녀들은 허기진 몸으로 감태 채취에 강제 동원되었다. 간난이는 못 먹은 채 힘든 노동을 하며 출산을 했으나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둘은 곧 죽고 만다. 이듬해 다시 출산하자 무당집에 호적을 올리며 목숨을 보전케 한 뒤, 징용대상인 남편을 인솔자로 하여 아홉 명의 해녀와 함께 금강산 위의 장전에 바깥물질을 간다. 그러던 차에 종전이 되었고 간신히 삼팔선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호열자가 창궐하여 삼백 명 목숨을 앗아가고 민심이 흉흉하던 차에 1947년 삼일운동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여섯 명이 사망하자 온 섬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육지부에서 응원경찰대, 서북청년단이 대거 미합정을 타고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간난이네도 시숙부가 붙잡혀 간 데 이어 남편도 끌려갔다. 남편은 석달 만에 만신창이인 채로 풀려났으나 병마와 싸우는 몸이 되고 말고, 4·3병기가 있게 된다. 병중의 남편은 경찰이 찾아오자 스스로 동맥을 끊는다. 겨울이 되자 이번엔 간난이를 붙잡아가려고 군화발자국이 찾아왔다. 어린 아들을 부둥켜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간난이 앞으로 시어머니가 막고 서서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면서 며느리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그녀는 불순분자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

기상천외하게도 그것은 왜정 때 만들어진 경찰기록이었다. 칠팔 년 전 왜놈 조합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십일 구류 산 것이 기록에 올라 남편과 한통속의 사상불온자로 점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죄였다. 일제에 의해 불온분자라고 낙인찍힌 자는 해방된 땅에서도 여전히 불온분자였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왜놈들한테 대항한 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왜 죄가 되느냐고, 간난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차디차게 비웃었다. 삼팔선이 그어질 때 우연히 이북에 놓여 스무날 가랑 머물렀던 것을 놓고, 나쁜 사상을 가지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래 이북에 머물렀느냐는 것이었다.⁴⁵⁾

45) 현기영, 「거룩한 생애」, 『마지막 테우리』(창작과비평사, 1994), 42쪽.

46) 위의 책, 55쪽.

해녀로서 부당한 일제의 착취에 맞선 것이 해방된 조국에서 죄가 되고 있다. 게다가 남편의 징용을 피할 겸 돈도 벌 겸 금강산 부근에 바깥물질을 갔다가 해방을 맞아 돌아온 사실도 이복에 머물렀다는 이유 때문에 사상을 의심받고 있다. 결국 간난이는 그날 저녁 바닷가 모래밭에서 여덟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총살당한다. 한 제주해녀의 삶은 현대사의 격변 속에서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던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역사에서 외면당하고 나아가 무참히 희생당해야 했던 민중의 실체로서의 제주해녀상을 「거룩한 생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림화(1950~)의 단편소설 「불턱」(1987)은 제주도의 고통스런 역사 속에서 살아온 제주여인들의 억척스런 삶을 ‘순택이 어멍’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20세기초의 신축제주항쟁(이재수란), 1930년대 해녀항쟁, 해방 직후의 4·3 등을 겪어온 제주여성들의 삶이 해녀들의 탈의공간이자 몸을 녹이는 공간인 ‘불턱’에서 이야기된다.

그러니까 제주 잠수들은 일본이 이 땅을 삼키기 전에도, 삼킨 후에도 여전히 물질을 해오고 있는 터, 워낙 섬이 좁다 보니 삼월 초순경에 미역허채가 끝나면, 손바닥만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땸기에 부친 농사에 매달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어 잠수들은 돈벌이를 하러 타지로 떠났다가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귀향하는 게 관행이 됐지. 저 멀리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톡으로, 동경열도로, 대마도는 물론이고, 오끼나와 그리고 대련으로, 가까이 는 한반도 해안 어디에나 출가(出家)하여 물질을 하고 있네.

어디에나 사람 사는 곳에는 악덕한 인간이 있게 마련이어서 출가 잠수의 등을 쳐 먹고 사는 전주(錢主)가 득시글거려 문제가 심각했다네. 출가 잠수들은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돈값을 하느라고 노예처럼 물질이며 굶은 일을 다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가 이즈음에 이르러서도 비일비재하다네. 어떤 잠수는 도망치려다가 들켜서 갯벌에 내던져져 죽을 뻔한 사고도 얼마 전에 발생했었다네.⁴⁷⁾

1932년에 벌어졌던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바깥물질하는 제주해녀에 대한 일반

47) 한림화, 「불턱」, 『꽃 한 송이 숨겨 놓고』(한길사, 1993), 184쪽.

적인 수탈의 양상이 서술되고 있다. 해녀들의 공동체 질서가 형성되는 공간인 불턱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 형상화라기보다는 제반 상황에 대한 소개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한 소설이어서 해녀들의 생활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지 않는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는 1930년대인 경우에는 제주해녀로서 겪는 역사적 체험이 서술되고 있는 반면,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해녀만이 아닌 제주여성 일반의 역사적 체험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검토하였던 현기영의 『바람타는 섬』은 해녀의 삶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특히 역사적 사건의 맥락에서 접근한 작품이다. 바깥물질 나간 세화·하도 마을 해녀들은 갖은 수탈을 당한다.

(...) 세화·하도 잠녀들이 단체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자 자연히 전주와 서기에 대한 푸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세화 잠녀반장인 이도아한테 온 그 편지는 청년회 명의로 된 것인데, 내용인즉 천초(우무풀) 국제 시세가 갑절 이상 뛰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값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잠녀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치를 떨며 분개했다. 우무 한 근에 적어도 이십 전을 받아야 마땅한 것을 겨우 십 전밖에 못 받다니!

그러나 상전과 다름없는 것이 왜놈 전주라 정말 말 한 꼭지 붙이기도 두려운 존재였다. 경찰은 물론 현지 어업조합 임원들까지 그와 한 통속이었다. (현지 어업조합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입어료라는 명목으로 잠녀들을 수탈하고 있었다.) 이마빡에 바늘을 찔러도 피는커녕 진물도 안 나오게 생긴 전주 구로다에게 천초 값 올려달라고 해봤자 공연히 미움만 살 뿐 공연히 들어줄 가망이 없었다. 그러나 속은 걸 알아버린 이상 유구무언으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⁴⁸⁾

빠빠지게 노동을 하면서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제주해녀들의 비참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전주와 서기, 현지 어업조합 등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해녀들을 기만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다. 바깥물질 나갔던 해녀들은 고통 속에서 세월을 건넌 후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녀들은 현실의

48) 현기영, 『바람 타는 섬』, 269쪽.

모순을 절감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 잠녀생활은 참말로 비참합네다. 소로 못 나면 여자로 나고 여자 중에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잠녀들이우다. 썰물 나면 동해바다, 밀물 나면 서해바다, 정처없이 떠도는 신세, 겨우 소라 한두 개 잡으려고 요새 같은 겨울 찬물에도 들어서 하고, 어린것들은 어명을 기다리며 울다 지쳐 갯가 이 돌틈에 앉아 졸고 저 돌틈에 앉아 졸고……

우리가 그 힘든 물질 하려면 장정만큼 먹어서 기운을 쓰는데 점심마저 굶기 일쑤라마썸. 하도 배가 고파 물에 나오자마자 입에 거품 물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우파. 툇밥같이 목에 각각 메는 밀기울 수제비 먹으려면 사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집네다.(…)

세상이 해도 해도 너무나 불공평합네다. 우리 불쌍한 잠녀를 보고 땀물 지고 물에 들라, 짬을 지고 불에 들라 하니 어찌 삼니까. 개미같이 일하는 우리 잠녀, 아니 개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우리 잠녀들이우다. 개미 사회엔 착취가 없수다.”⁴⁹⁾

‘소로 못 나면 여자로 나고 여자 중에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잠녀들’이라는 말에서 제주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을 확실히 가늠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미보다 더 불쌍한 것이 해녀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원래 힘든 생활에 더하여 착취까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단결만이 우리의 힘이우다. 우리 같은 약자들은 단결 안 하면 못살 아마썸.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테주만, 저번 우리가 울산에서 전주와 싸워 이긴 건 일심으로 단결한 때문이우다. 여러 말할 것 없수다. 우릴 제일 괴롭히는 것이 뭐우파? 우리 잠녀들을 이익되게 합네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억누르고 속이고 빼앗는 단체가 대관절 뭐우파? (…)”⁵⁰⁾

49) 위의 책, 343~344쪽.

50) 위의 책, 344쪽.

그래서 제주해녀들은 어용 해녀조합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단결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착취의 배후에는 일제가 있으니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은 곧 항일투쟁이기도 하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은 이처럼 투쟁하는 해녀상, 공동체로서의 해녀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거룩한 생애」, 오경훈의 「세월은 가고」, 한림화의 「불턱」 등에서 보듯이 현대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는 20세기에 제주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1930년대 해녀항쟁을 집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4·3과 연관된 작품들도 적지 않다. 1930년대 해녀항쟁이 주된 시대적 배경이었던 것은 그 사건에 해녀들이 중심인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해녀들만이 아닌 제주사람 전체가 맞닥뜨렸던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격변 속에 놓여진 제주해녀의 삶은 광풍의 현대사를 힘겹게 헤쳐온 제주사람 전체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의 형상화 양상을 이국적·성적 이미지로서의 제주해녀,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까지의 제주해녀에 관한 작품들은 김정환의 「월광환」, 허윤석의 「해녀」, 황순원의 「비바리」, 정한숙의 「해녀」·「굴밭 언덕에서」 등에서 보듯이 모두 외지인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는 대체로 제주해녀를 낭만적으로 인식하여 그 구체적인 삶의 양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주해녀를 이국적 이미지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소설들은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 작가의 작품들이다. 따라서 제주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통해 제주해녀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굳혀놓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둘째,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오성찬·현기영·현길언·고시홍·오경훈·한림화 등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제주해녀가 본격적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이들의 작품에서는 해녀들에 대한 낭만적 인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오성찬의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등에서는 생활인·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제주바다에서의 물질작업이든 타지에서 행하는 바깥물질이든 해녀들이 인고하며 맞닥뜨려야 할 생업으로 인식된다. 제주해녀들이 생명을 걸고서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숙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문학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제주해녀의 생활상도 역사적 시각을 토대로 접근하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거룩한 생애」,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 오경훈의 「세월은 가고」, 한림화의 「불턱」 등의 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는 20세기에 제주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 가운데 1930년대 해녀항쟁에 집중되어 형상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4·3과 연관된 작품들도 적지 않다. 1930년대 해녀항쟁이 주로 부각되는 것은 그 사건에 해녀들이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건 역시 해녀만이 아니라 제주사람 전체의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격변 속의 제주해녀의 삶의 양상은 처절한 현대사를 헤쳐온 제주사람 전체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제주해녀를 형상화한 현대소설을 통독하고 그것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볼 때 평면적인 기술로 흐른 경향이 있다는 점, 각 작품을 저마다의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시키는 데 다소 소홀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추후 각 유형에 따라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할 경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한 필요가 있다. 다만, 산재한 관련 자료를 찾아 실증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유형화했다는 면에서는 제주학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소설 연구의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제주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대문학 작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문제를 학술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 필요성만큼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문학의 경우 제주학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이 아직 드문 편이다. 물론 현대문학 작품의 경우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결코 지역과 무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작품이 창작되고 발표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 문학작품임을 인식할 때, 제주도를 형상화한 작품은 제주도 연구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해녀의 경우, 앞에서 검토해 본 작가들간의 인식 차이는 사회 전반의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 게다가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디테일과 상상력은 역사적 기록물에서 간과하고 마는 해녀들을 둘러싼 삶의 진실을 찾는 데에도 유용하리라 믿는다.

다음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현실과 관련하여 지역현실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정할 수 있다. 문학에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지역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과 역사를 문학화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소홀히 하는 문학은 특히 현지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해녀를 다룬 문학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물론 아니다. 다른 지역의 다른 부류의 삶을 다룬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 출신 작가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말이다. 형상화 대상에 대해 작가가 애정을 갖고 진지하고 치밀하게 접근했을 때야만 비로소 문학적 리얼리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한국현대문학 전반의 문제도 짚어볼 수 있다. 한국문학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각 지역의 문학은 거의 인정하지 않거나 열등한 문학으로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지역마다의 개별적인 상황, 즉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보편성만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학의 다양성을 해치고 획일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문학의 폭과 깊이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해녀를 다룬 현대소설들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녀를 형상화한 작품의 경우 지역성과 관련하여 고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김정한. 「월광한」. 『문장』 1940년 1월호.
 오경훈. 「세월은 가고」. 『유배지』. 신아문화사, 1993.
 오성찬.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 2001.
 정한숙. 「해녀」. 『문학예술』 1964년 5월호.
 _____. 「굴밭 언덕에서」. 『제주도』 제36호. 제주도, 1968.
 한림화. 「불턱」. 『꽃 한 송이 숨겨 놓고』. 한길사, 1993.
 허윤석. 「해녀」. 『문예』 1950년 2월호.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_____. 「거룩한 생애」. 『마지막 테우리』. 창작과비평사, 1994.
 현길언. 「껍질과 속살」. 『달아지는 세월』. 문학과지성사, 1987.
 황순원. 「비바리」. 『문학예술』 1956년 10월호.

<논문·단행본>

- 강대원. 『해녀 연구』. 한진문화사, 1973.
 _____. 편저.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권순궁. 「‘배비장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여성」. 『영주어문』 제1집. 영주어문연구회,

- 1999.
- 김영돈.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제주 바다와 문학」. 『영주어문』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
- 송명희.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 『현대소설연구』 8호. 현대소설학회, 1998.
-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학회, 1998.
- 전경수. 「제주 연구와 용어의 탈식민화」. 『제주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2000, 월인.
-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2002.

이 논문은 2002년 11월 2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Women Divers of Jeju in Modern Novels

Kim, Dong-Yun

<Abstract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way women divers of Jeju are portrayed in modern novels. The novels about these women div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women divers as exotic and erotic image, as workers, and those living in a turbulent history.

First, until the 1960s, literary works on Jeju's women divers had been written by writers from outside of Jeju. Examples such as *Under the Moonlight*(月光恨) by Kim Jung-han, *Women Divers* by Heo Yun-suk, *Bibari*(Jeju's dialect for a "maiden") by Whang Soon-won, and *Women Divers* and *From the Hill of Tangerine Orchard* by Jung Han-sook. These works depicted women divers in a romantic manner, ignoring their detailed life. However, these works have considerable importance in Korea's literary history, and can provide readers with partial information on women divers of Jeju.

Second, after the 1980s, novels on women divers started to be written by native writers such as Oh Sung-chan, Hyun Ki-young, Hyun Kil-un, Ko Shi-hong, Oh Kyung-hun, and Han Lim-wha. Women divers are not romantically portrayed in these literary works. In contrast, women divers' working lives were the focus of such novels as *Floating Ee-au Island* by Ko Shi-hong, *Island Riding on the Wind* by Hyun Ki-young, *Fishermen*

Leave at Night by Oh Sung-chan. In these novels, women divers perceive their demanding jobs of diving as their fate.

Third, novels which approaches women divers' life in historical perspective had emerged with the high expect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of literary works. These novels focus on women divers involved in turbulent historical events. Among those events in 20th century is the Women Divers Resistance in the 1930s. Such works as *Island Riding on the Wind* and *Holy Life* by Hyun Ki-young, *The Shell and Flesh* by Hyun Kil-un, *Time Has Passed* by Oh Kyung-hun, *Bultuck*(a place for women divers to worm up) by Han Lim-wha are related to the Jeju April 3rd Massacre. This ev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entire Jeju people as well as women divers. Therefore, women divers' life coincides with that of the entire Jeju people who have weathered through miserable modern events.